

GM군산공장 활용한 '전북형 일자리' 만든다

일자리 모델 확산·공론화 위한
대도약 정책협의체 분과위 개최
지역내 노·사·민·정 머리 맞대
'일자리 TF' 구성... 모델 개발

전북도가 지역내 고용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본격적으로 열어나가기로 했다.

도는 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대도약 협의체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실무자 지원을 위한 특별전담조직(워킹그룹)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체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2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논의 중에 있는 GM군산공장 활용 '전북형 일자리' 모델외에 도내 타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 위원,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김미정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

/뉴스

안건보고를 통해 "정부가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추가 발굴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도에서는 3월 중으로 정부부지사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 및 일자리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상생형 일자리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자리TF는 일자리 모델과 인센티브(안)를 개발하는 2개 분과로 구성하고, 분과 아래에 도 실국장 중심의 4개 실무분과(기업유치, 노사협력, 기업지원, 근로

지원) 운영을 통해 구체화 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노·사·민·정 타협의 장 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제시안을 바탕으로 도 자체 인센티브 패키지안을 상반기내 발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GM군산공장 활용 전북형 일자리 모델 구체화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도 GM군산공장 활용 '전북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안건보고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기존 유휴공장을 이용,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기업이 믿음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도는 이를 위해 3~4월중 참여기업을 유치하여 대도약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분과위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노·사·민·정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실정과 참여기업에 맞는 모형을 만들고 6월까지 상생협약 체결 후 산업부에 사업신청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분과위원과 전문가들은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외대 황성돈 교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에 '지역 대학이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이 필요하며, 캠퍼스종합기술원 양근의 원장은 신산업, 신기술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기존 기업보다는 앵커기업 발굴을 통한 제3, 제4의 전북형 상생일자리 모델의 지속적 추진 의견을 내놨다.

전북대 설경원 교수는 도민과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의 실질적 지원의 정확한 산출과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자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지원 정책은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GM군산공장 활용 '전북형 일

자리'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형태로는 대기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다만 기업의 수가 너무 많으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조언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역내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발굴해 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GM군산공장 활용 '전북형 일자리'와 함께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신속히 마련해 전북의 어려운 고용 위기상황 극복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상생형 일자리와 함께 2019년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로 포함된 '1)제3의 금융중심지 육성, 2)인구감소 대책, 3)혁신공간 재생(이서 묘포장 개발 등)'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공론화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세미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체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속의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광주은행은 지난 4일 광주 북구 엠코로에 위치한 씨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쌀 400kg를 전달했다.

광주은행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쌀 400kg 기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4일 오후 3시 광주 북구 엠코로에 위치한 씨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쌀 400kg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연말 '광주은행 KJ Card 따뜻한 동행'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개인신용카드 및 개인체크카드를 합산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 1백만원권(1명), 기프트카드 50만원권(2명), 대형마트 모바일쿠폰 5만원권(20명), 편의점 모바일쿠폰 1만원권(200명)을 지난 12월

14일, 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경품으로 제공했다.

또한 응모 고객이 1만명 이상인 경우 쌀 400kg를 기부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이번 이벤트에 1만5천여명이 응모함에 따라 광주은행은 씨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쌀 400kg를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씨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번 쌀 기부는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

/광주=봉태영 기자

함평군, 농어가수당 年 120만원 지급 가시화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 의회 통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지급
'농가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두 토끼'

전남 함평군이 전국 최초 농어가수당 연 120만 원 지급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함평군에 따르면, 농업보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주요 골자로 한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함평군 추산 8천여 지역 농어가에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 원의 농어가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



이운항 함평군수

록하고 가족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 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지급한다.

물론 지난해 10월 신청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협의 만료시한인 오는 4월까지 긍정 답변이 돌아오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어가수당 지급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군은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농어가수당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세부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운항 군수는 "군민의 70%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가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또 수당이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농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나성주 기자 nsj3983@

광주시, 현대차·주간사, 사업구체화 지원 등 공조체계 구축

합작법인 투자유치 본격 돌입

광주광역시가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3월부터 투자유치 주간사와 함께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잠재적 투자 기업 및 재무적 투자자(FI)에 대한 본격적인 개별 접촉에 나선다.

앞서 광주시는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원할 투자유치 주간사로 유사업무 추진 경험,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간 협의를 통해 매출액 기



광주광역시청 전경.

준 국내 1위('18년 비즈니스 워치 발표 기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시는 투자유치 주간사 및 주요 투자자

인 현대차와의 원활한 소통과 상시 업무 협조를 위해 서울에 거점 사무실을 마련해 실무자들이 함께 협업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향후 투자자 모집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월31일 체결한 투자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최다 출자자로서 투자유치 주간사와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나머지 투자자 모집 및 주주구성을 추진하고, 현대차는 투자자의 일원으로 투자자 모집에 협력하며 신실법인 공장 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 기술지원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계획 구체화를 지원하는 등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6일 (수)
음력 : 1월 30일

수도권 날씨
5~1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연천 0/10
동두천 2/12
가평 -1/12
파주 1/11
서울 5/12
양평 2/14
인천 5/10
수원 4/11
용인 4/11
평택 3/13

해돋이 / 06:58 | 해질 / 18:30